

지도자의 안목과 리더십

(최근 미얀마의 반정부 시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신흥 대표이사·사장
김 양 명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소위 명차유신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아시아의 현대화 물결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이른바 네 마리의 용 을 거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일부 아세안국가와 중국을 지나서 인도까지 이르렀으며, 지금은 파키스탄과 서아시아로 확산되고 있다. 모두 이른바 개방 개혁정책에 동참한 나라들이다. 그런데 미얀마(옛 버마)는 자주의 이름으로 이 거센 물결을 피해 서서 고립되어왔다.

미얀마는 한국보다 2년 늦은 1948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독립할 당시 버마의 국가 발전의 조건은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도 월등히 나았다. 삼모작을 할 수 있는 쌀 생산지로 쌀 수출국이었으며, 천연가스를 비롯하여 풍부한 광물자원, 산림 자원, 수산자원 등을 갖고 있는 자원 부국이었고, 또한 영국 식민 지배의 유산으로 관료 제도를 비롯해서 사회 기반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버마는 독립 후 민주주의를 도입했으나 내전 등으로 혼란을 겪다가 1962년 네인 장군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이른바 ‘버마식 사회주의’ 군사정권을 수립했다. 1988년 장기간의 군부독재를 반대하여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으며, 유혈진압 과정에서 3,000여 명이 희생되었다. 이 때 민정 이양의 합의에 따라 1990년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미얀마의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 아웅산 수치(Suu Kyi)가 이끄는 민주국민연맹이 압승하였으나, 군사정부가 이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군정을 계속해왔다. 군복을 벗고 계속 집권할 계획이었으나 실패했던 것이다.

버마는 독립 이후 오랫동안 폐쇄와 자주의 길을 걸어오는 바람에 국민의 민생고조차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수령의 길로 빠져들었다. 지금 미얀마는 국민 대다수가 하루 1달러 정도로 연명하는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이며, 어린이 3명 중 1명은 영양실조 상태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2007년 2월에 쌀값이 두 배로 올랐는데 이 때 이미 소규모 수요가 시작되었으며, 이어 9월에 정부재정 조달을 위해 기름값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민생고에 시달리던 서민들의 분노가 촉발되고, 이것이 그 동안 억압

되었던 민주화의 열망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이번 반정부 시위의 실상은 먹고살기 위한 몸부림에서 야기된 민생시위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버마의 네윈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1년 전에 한국에서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당시 한국은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절대빈곤의 나라였으며, 군사정부의 구호가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 였다. 그 때 버마는 굶을 걱정은 추후도 안 해도 되었으며, 1960년대 네윈은 인도의 네루,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등과 함께 제3세계의 리더로 꼽혔고, 또 버마는 일찍이 우 탄트라네 유엔사무총장(1962-1971 재임)을 배출했다. 하지만 약 45년이 지난 지금 미얀마는 최빈국으로 전락했고, 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이 기적같은 일을 두고 독일의 전후 경제부흥을 뜻하는 ‘라인강의 기적’에 비추어 흔히 ‘한강의 기적’으로 부른다.

같은 시기에 군사 쿠데타에 의해 탄생된 군사 독재국가이던 이 두 나라를 무엇이 이처럼 다르게 만들어놓았을까? “정책은 결과가 말한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성공한 정책이었고, 버마는 실패한 정책이었다. 그리고 이는 네윈의 폐쇄적 사회주의와 박정희의 개방적 시장주의의 차이가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도자의 안목과 리더십이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이다.

모든 국가의 우선 과제는 국민이 배불리 먹고사는 경제 문제인 것이다. 요즘 한국경제는 수출이 좀 잘 되는 것 빼고는 영 신통치 않다. 국민 소비지출, 국내 설비투자, 외국인 투자는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해외소비와 해외 투자는 증가추세에 있다. 수입은 늘지 않는데 물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 지출은 늘고 있다.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출산율은 감소하고 노령화는 심각할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버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과거와 시비를 하면 미래가 손해를 본다는데 과거와 시비를 계속하며, 제 욕심만 차리고 남의 탓만 일삼고 있다. 그동안 뼈 빠지게 일해 좀 벌어들인 거 같 라 먹고 말 일도 아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미얀마처럼 지금보다 더 못살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국가나 기업이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조직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의 안목과 리더십은 그 조직의 행복행(幸不幸)을 좌지우지한다. 어려운 이 시기에 모름지기 대소조직의 지도자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잘 먹고 잘 살 것인지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구성원을 그러로 리드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그 동안 우리 국민의 생활이 성장에 길들여져 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도 통한다.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리더십은 이러한 국민의 여망과 일치하는 리더십인 것이다.